



불기 2562(2018)년
부처님오신날
지혜와 자비로 세상을 아름답게

봉축법요식

● 일시 : 불기 2562년 5월 22일(화) ● 장소 : 대적광전

식 순 오전 10시

- 타종
- 개회
- 집회가
- 삼귀의
- 찬불가(보현행원)
- 육법공양
- 찬탄 경문 낭독
- 봉축사
- 축사
- 청법가
- 입정
- 봉축법문

- 부채춤 | 이근희
- 민요(양산도, 밀양아리랑, 뱃노래) | 최지영,곽정희, 손소화, 김태순, 강인성, 박순애
- 흥춤 | 이근희

- 봉축시
- 봉축가
- 발원문
- 어린이 발원문
- 안내말씀 및 내빈소개
- 공지사항
- 사홍서원
- 산회가
- 관불의식



대한불교 조계종 법왕사
대구광역시 수성구 파동로 51길 104
T. (053)766-3747 F. (053)767-6095
www.bulbwangsa.or.kr



한결 같은 마음

해오름요양원
대구광역시 수성구 파동로 51길 96
T. (053)766-5767 F. (053)766-5095
www.silver79.kr

우리도 부처님 같이 마음을 맑게 세상을 아름답게

2018. 5 | Vol. 281호

맑고 아름다운 사람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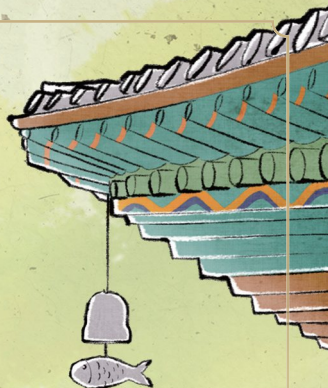


대한불교
조계종 법왕사



해오름요양원
한결 같은 마음

제35회 백고좌법회 영가천도 49재 봉행



법왕사에서는 제35회 백고좌법회 영가천도 49재를 봉행하고 있습니다. 4월 24일 입재한 49재는 백고좌법회 기간 동안 매일 기도를 올리며 6월 11일 회향합니다.

영가천도에 참여하는 불자들은 기도기간 중 선망부모와 조상 및 수자령가들을 천도, 극락왕생을 기원하며 사경책을 한 권씩 정성들여 베껴 회향일에 불사르는 의식도 봉행합니다.

법회기간 동안 조상영가 천도재를 올림으로써 왕생극락을 기원하는 49재에 불자 여러분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기도

이 재 5월 7일(음. 3월 22일)
삼 재 5월 14일(음. 3월 29일)
사 재 5월 21일(음. 4월 7일)
오 재 5월 28일(음. 4월 14일)
육 재 6월 4일(음. 4월 21일)
막 재 6월 11일(음. 4월 28일)
※영가 접수 받습니다.(매주 월요일 재일)
※영가 1위당 5000원

준비물

속옷 - 런닝, 팬티, 양말, 기타
겂옷, 신발(짚신) - 사중예 준비
세면도구 - 비누, 치약, 칫솔, 수건, 대야
공양미 - 3되3홉 또는 15,000원
수자령 - 분유, 배냇저고리, 과자, 유아복, 장난감 등

문의

법왕사 766-3747, 9088

※ 매 재마다 재물(과일, 떡)을 공양하실 분은 종무소에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Vol. 281호



- 04 깨침의 향기**
자식은 부모 그림자 보고 자란다(1) · 원공당 정무 대종사
- 06 비슬산방**
부처님오신날의 참된 의미 · 실상 주지스님
- 08 법왕논단**
어리석은 사람은 선악도 구별 못한다 · 본원스님
- 12 부처님이야기 – 초기원형불교 자료에 근거(27)**
까꾸산다 부처님 이야기 · 영일스님
- 16 경전의 세계 – 초기경전**
삶 속의 진리 경전에 담다
- 20 특집 : 부처님오신날**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로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자
- 24 해오름 요양원 – 함께 말면 좋아요**
봄의 불청객, 춘곤증
- 28 법왕사소식**
- 31 법왕사게시판**
- 34 해오름소식**
- 35 해오름게시판**

월간 맑고 아름다운 사람들 | 등록일_2012년 9월 14일 | 등록번호_대구, 라 07721 | 발행처_대한불교조계종 법왕사 대구광역시 수성구 파동로 51길 104 www.bubwangsa.or.kr | 발행일_불기 2562(서기 2018)년 5월 01일 발행 | 통권 281호 | 종무소 T. (053)766-3747-9088 F. (053)767-6095 | 발행 겸 편집인_실상스님(권오범) | 인쇄인_강영도 | 편집위원장_원인스님 | 편집위원_모도, 영일, 상철, 자행, 자윤, 강선옥 | 기획·제작·디자인_다산미디어 (053)424-3322

법왕지 월간 <맑고 아름다운 사람들>이 매달 불제자 여러분에게 다가갑니다. 더욱 알차고 맑고 아름다운 사람들의 따뜻한 이야기가 전해지기를 바란합니다.

자식은 부모 그림자 보고 자란다(1)

원공당 정무 대종사



얼마 전 주말에 불자 한 분이 잔뜩 흐린 얼굴로 찾아왔습니다. 심한 부부싸움을 하고 집을 나왔는데, 마땅히 갈 데도 없고 해서 고민하다가 발길이 절로 향했다는 것입니다. 다른 갈등은 없는데, 자식 교육문제에 있어서는 늘 부딪친다면서 하소연합니다.

사실 적으면 20년, 많으면 30년, 아니 평생을 해야 하는 자식농사에 대해서는 정답도 없고 개개인의 성품에 따라 교육방법도 달라져야 하기 때문에 뭐라 조언하기도 힘듭니다. 하지만 예나 지금이나 자녀교육에 있어 꼭 지켜야 할 원칙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가정의 화목인데, 자녀 교육 문제로 자녀들 보는 앞에서 이혼을 하고 싶을 정도로 크게 다투었다고 하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하자, 그 불자는 금세 얼굴이 환해져서 돌아갔습니다. 물론 그분이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마음이 풀렸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상대방에 따라 방편 설법을 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글 또한 마찬가지인데, 자식도 놓아보지 않은 사람이 자녀교육에 대해 조언한다는 것이 어불성설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원칙론적인 입장에서, 그리고 부처님 가르침에 입각해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부부화합은 자녀교육의 생명입니다. 가화만사성(家和萬事成)은 상식입니다. 자녀는

부모의 그림자를 보고 자라는데, 부모의 갈등 속에서 자녀가 제대로 성장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교육은 일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자녀에게 ‘친구와 싸우지 말라, 다른 사람을 배려해야 한다, 양보하면서 살아라, 역지사지(易地思之)하라, 더불어 살아야 한다’ 등등 좋은 얘기를 다 해주면서, 정작 부부지간에는 배려하지 않고 양보하지 않고 처지를 바꾸어서 생각하지 않아 싸운다면 자녀가 무엇을 배우겠습니까? 또한 자녀 앞에서 부부싸움을 할 경우, 자녀는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집중력이 떨어져 학업에도 열중할 수 없고 부모가 원치 않는 길을 걷게 될 수도 있습니다. 아주 어린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날 모 사찰의 3박4일 여름불교학교에 참가한 일곱 살짜리 꼬마들이 하는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란 일이 있습니다. “엄마, 아빠가 많이 싸워서 속이 시끄러우니, 절에 데려다 달라”고 했다는 겁니다. 만일, 자녀에게 “네 엄마 때문에, 아빠 때문에 못살겠다. 너만 아니면 당장이라도 갈라설 텐데” 하며 원망 섞인 말을 해댄다면 아예 자녀교육을 기대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기 인생에 대해 긍정할 때 능력이 발휘되고 모든 일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아직 스스로 부처임을 깨닫지 못한 인간인자라 갖가지 습(習)에 휘둘려 화도 나고 짜증이 날

때도 있겠지만, 사랑하는 자녀 앞에서는 그런 표정을 짓지도 말고 부정적인 말도 해서는 안 됩니다. 인간은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느낄 때 삶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갖게 되고 그래야 행복한 인생을 가꿀 수 있는 것입니다.

요즘 두 쌍이 결혼하면 한 쌍이 이혼하는 세태라 하는데, 참으로 큰일입니다. 정말 도저히 같이 살 수 없는 상황이어서 이혼을 했다면 자녀에게 잘 이해시켜야 합니다. 비록 엄마 아빠는 같이 살 수 없지만, 사랑하는 것을 인식시키고, 자녀를 위해 기도해주십시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남편의 외도로 이혼을 했다고 합니다. 어린 자식이 보고 싶어 우울증까지 걸렸고 자살 시도까지 했었는데, 다행히 부처님 법을 만나 마음을 다스릴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 후 수많은 아이들을 위해 봉사활동을 하면서 자식을 위해 기도했답니다. 낳은 자식 대신 기른 자식들이 많아졌고, 비록 자주 만나지는 못해도 낳은 자식이 잘 성장해서, 엄마에 대해 자랑스워하고 고마워한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공덕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마음 법입니다.<계속>

원공당 정무대종사 열반 3주기 추모 범어집 『인생졸업장』에서

부처님오신날의 참된 의미

실상스님 / 법왕사 주지



“천상천하 유아독존(天上天下 唯我獨尊)”

석가모니께서 탄생하시어 제1성(聲)으로 외친 말씀입니다. 즉, 천상천하에서 오직 내가 홀로 제일 귀하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신비적이며 초자연적인 표현이지만 석가세존의 초인간적 신통의 모습을 표현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존귀한 인생으로 태어나서 그 존엄성을 깨닫지 못하고 육도의 미로(迷路)에서 윤회 방황하는 이들이 자기 자신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서 고뇌에서 완전히 해탈되어 대자유인이 되었을 때, ‘독존(獨尊)’이라는 자각(自覺)이 선언되고 나아가 모든 중생들이 불성을 갖추고 있으므로 해서 만인이 다 평등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누구든지 번뇌를 끊고 괴로움과 괴로움의 집착과 그 원인을 해소하여 밝고 명량한 진실상태를 유지하고 바르고 청정한 생활을 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독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것은 팔정도를 닦고 육바라밀로 표현되는 이타자리(利他自利)의 보살도를 실천해야

이루어질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도 이 세상에 탄생하시자마자 그같은 깨달음의 경지에 이른 것은 아닙니다.

“삼계개고 아당안지(三界皆苦 我當安之)”

“삼계는 불붙는 집과 같아 온 세상이 고통 속에 묻혀 있으니 내가 마땅히 평화롭게, 안심입명에 들도록 모든 중생을 구제하리라.”

부처님은 태어나시어 또한 이렇게 이 세상의 한 사람이라도 남김없이 구제하려고 서원을 세우셨습니다. 부처님께서 탄생하시자마자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 선언하신 것은 누구나 불성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존귀, 존엄하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석가여래가 탄생하신 진정한 의미는 부처님께서 일생에 걸쳐 우리에게 보여준 무상대도의 길에 있으며 그 길을 우리도 갈 수 있다는 점을 깨닫는 데에 있습니다. 그러기에 전 인류가 부처님오신날을 봉축하고 우리 불자들이 무명을 밝히는 연등을 올리는 참의미로 부처님의 명호를 염하고 마음의 등불을 켜게 됩니다.

우리 불자들은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새삼 부처님 법은 우리의 실생활에 직결돼 있음을 인식하고 석가 세존에 있어서 인간 내면의 성찰이 어떻게 투영되었는가를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거기에는 바로 향상일로(向上一路)의 방편과 해탈의 길이 깊이 교시되

어 있습니다. 참으로 발심만 한다면 누구든지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해할 수 있으며 실천할 수 있으므로 그것은 전 인류가 구제되는 청정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명 업식에 빠져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나와 남이 갈라서서 불신하고 증오하면서 시비장단에 춤추는 행태가 마치 아수라의 투쟁처럼 악착스럽습니다. 윤리도덕이 무너져 이미 바로 세우기엔 힘이 들고 이기적 향락과 비리를 정화하려면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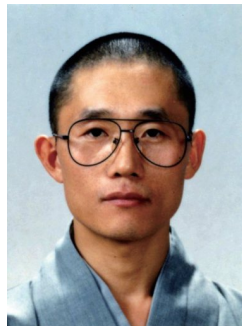
살도음망(殺盜淫妄)이 판치는 참담한 현실과 중생계의 말세증후군을 치유하여 온 중생을 구제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부처님만이 그 방법을 제시하셨고 부처님만의 불가사의한 원력으로 밖에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에 무명에서 밝은 지혜로 전환하며 이기적 향락에서 청정한 보살심으로 좋은 인연, 가룩한 믿음을 살리는 복덕지음으로 인해서 부처님의 원력따라 서로가 서로를 존중히 여기고 다같이 존엄한 인격체임을 자각해서 무책임과 무절제로 만연된 욕망의 사회를 깨달음의 정토세계로 바꾸기 위해서는 우리 불자들은 업장을 참회, 반성하여 새로운 마음으로 거듭 태어나야 할 것입니다.

부처님오신날을 맞이하여 진정으로 그 의미를 살피고 고통이 없는 안락한 불국정토를 기필코 이룩하겠다는 다짐의 서원을 우리 모두 가집시다.

어리석은 사람은 선악도 구별 못한다

본원스님 / 명상수행원



무릇 사람이 행하는 행실, 거기에는 비록 눈 뜨고 지켜보는 이가 없을지라도 반드시 상응하는 작용이 따른다. 의도적으로 씨부린 인과 연이 자생적으로 무르익으며 <금삼(錦森)>의 피, 연산을 잉태해 낳았고, 보위에 오른 연산군은 기다렸다는 듯이 선대가 저지른 악업과 같은 방식 그대로 원한에 사무친 원혼들의 넋을 달래듯 피로써 양값을 한 것이 좋은 예일 것이다.

이슬람 지하드(성전)의 9·11테러, 그에 대한 보복성이 짙은 2001년 이라크 침공은 유엔의 승인을 받지 않은 명분 없는 전쟁으로 갈수록 베트남전과 흡사한 양상의 진흙뻘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다. 바그다드, 바스라 지역 어디엔가 있다며, 노도처럼 진격해 살살이 뒤졌지만 대량 살상무기·생화학무기 따위는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 따라서 부시의 이라크 공격은 명분과 정당성을 잃었을 뿐만 아니라, 자국의 이익을 위한 국제행정 들러리쯤으로 여기고 이용하며, 유엔의 권위와 위상을 크게 손상시키면서까지 전쟁을 감행한 데는 실리를 챙기려는 또 다른 속내가 있었다.

중동 제2의 산유국 이라크를 두고 세계 석유 1/4을 사용하는 기름 먹는 소비국가 미국은 기름 욕심에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던 중 더없이 좋은 빌미를 제공받은 셈이다.

이라크에서 전사한 미군 병사가 베트남전에서 전사한 5만명보다 더 많은 숫자에 이르며,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등지에서 전투로 희생된 미국과 영국군 병사보다 이라크전으로 인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인한 자살(전역 병사 포함)자가 더 많다(2013년 4월, 영국 심신의학센터 보고서)고 했다.

‘과거 미국은 일본과 가쓰라-태프트 밀약을 맺어 각각 필리핀과 조선을 차지하기

로 밀약한 바 있다. 1905년 미국 시어도어 루즈벨트 대통령의 특사인 육군장관 테프트와 일본 총리 가쓰라 다로가 동경에서 비밀리에 체결한 협약으로, 미국이 필리핀을 통치하고, 일본은 한국을 보호국으로 만들기로 한 것이다.

미국의 경기 호황은 전쟁의 유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미국의 정계는 군산복합체가 지배한다. 군산복합체란 군수업체, 군부, 정치가들이 군사비 지출 및 군수무기의 판매를 통해 얻어진 이익을 나누어 갖는 유착 체제를 말한다. 미국을 움직이는 것은 군산복합체이며, 그 핵심은 ‘죽음의 상인’으로 불리는 록펠러-모건 재벌이다. 그러므로 한국전쟁, 베트남전, 아프리카 내전, 걸프전, 유고전쟁, 이라크전, 아프가니스탄 전쟁 뒤에는 언제나 무기판매로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미 군산복합체의 핵심인 ‘죽음의 상인’, 록펠러-모건 재벌의 검은 손길이 뻗어 있었다. 이들 군산복합체가 바로 백년이 넘도록 미국을, 그리고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실세이다.

걸프전과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엄청난 무기를 쏟아부은 것도 미국의 재고무기를 처분하고 아울러 무기 소비량을 늘여 이익을 극대화하자 하는 군산복합체의 계산이었다.

미·소 냉전이 끝나자 미국의 국방비 감축으로 무기산업이 사양길에 접어들었다. 국제 무기시장에서도 수요가 대폭 줄었다. 그

여파로 많은 군수업체가 도산하고 백만명이 넘는 무기산업 종사자들이 대량 실업의 위기에 처하게 되자, 미국은 무기 수출 증대에 전력했다.

〈한국은 어디로 가야 할 것인가〉 민희식 지음

6·25전쟁 발발의 가장 큰 원인은 1949년 ‘미국의 태평양 방위선은 필리핀과 알류산 열도를 잇는 선’이라고 규정한 국무장관 애치슨의 입장 발언에 따라, 미군정 시 들어와 있던 주둔군을 철수시킴으로써 김일성을 흥분시켰고, 흥분을 가누지 못한 김일성의 오판이 남침을 부른 것이다. 결국 애치슨의 무책임한 발언과 김일성의 무모한 오판이 맞물리며, 한국전쟁-분단국가 체제를 만든 미국은, 한국을 60년 이상 세계에서 가장 확실한 무기구매 주거래 고객으로 확보한 것이다.

어리석은 사람이 익히는 것을 보건대, 나쁜 짓을 늘 배워서, 자기가 하고 있는 행위가 선한 일인지, 악한 일인지, 좋은 일인지, 추한 일인지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다.

〈출요경〉

거짓말과 거짓 행실이 뿌리내린 유학

조선왕조(27대)를 통해 역불·탄압정책이 가장 심했던 성종-연산군-중종으로 이어지는 연대는, 그 어느 시기보다도 왕실은 정변과

골육상잔으로 피비린내가 났으며, 겹치는 왕손들의 요절과 전대미문의 폭군 출현이 있기까지는 다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다.

〈조선왕조실록〉의 기록에 의하면, 칠삭둥이 한명회(1415~1487)의 음모와 책략으로, 병사한 문종의 유지를 받들어 어린 단종을 보필하며, 불안한 왕실을 지키던 김종서를 죽인 수양대군(1453년 계유정난)은 조카 단종을 폐위시키고 보위에 오르니, 그가 7대 세조(1455~1468 재위)이다. 세조의 등극 이후, 단종 복위를 꾀하던 선대의 집현전 학자 성상문, 박팽년, 하위지, 이개(사육신) 등이 계획한 거사는 측근의 밀고로 발각되어 참혹한 죽임을 당하는 가운데, 왕위를 찬탈한 세조는 그러고서 오래지 않아 두 아들(예종·덕종)이 급사한데 이어 세손마저 시름시름 앓다가 죽는, 알 수 없는 변고를 겪는다.

그 자신도 온몸에 원인 모를 종창(부스럼 병)이 나 심히 괴로워하며 온양온천과 오대산 상원사를 다니며 몸을 씻고 지난날의 악행을 뉘우치는 참회기도를 하면서부터 차츰 병세는 낫는다.

조선시대 당파싸움은 망국의 원인

한편, 타고난 명석한 두뇌를 가졌으면서도, 그저 일신의 안락과 영화를 좇아 왕위 찬탈의 음모를 획책한 한명회는 정난의 일등공신으로서, 이후 평생을 벼슬 밭에 구르며 부귀영화를 누리나, 중전 간택이 된 두 딸이

까닭 없이 영문도 모른 채 잇따라 급사하는 아픔을 겪으며 망연자실한다. 그는 그것이 과거 자신이 지은 죄의 과보임을 어렴풋이 알고선 두려움에 몸을 떨며 하늘을 향해 울부짓는다. “죄는 내가 지었으니 차라리 나를 데려가 달라”며 자신의 과오를 자책하지만 왕실의 비극은 겨우 시작에 불과했다.

세조의 며느리이자 급사한 예종의 비, 중전이었던 대비 한씨는 둘째 아들(자산군)을 보위에 올린다.(9대 성종), 어린 성종은 인수대비(한씨)의 수렴청정을 받으면서, 훗날 폐비가 되어 사사된 윤씨 소생의 젖먹이 연산을 왕세자로 책봉, 인수대비(할머니)의 엄한 지시 아래 제왕학을 가르치지만 오래지 않아 성종마저 병사하면서, 마침내 보위에 오른 연산군은 어느 날, 생모 윤씨가 폐비로서 사약을 받고 죽었다는 승정원 〈실록〉을 훑쳐본 뒤, 크게 놀란 나머지 이성을 잃은 듯 사나운 성정을 드러내기 시작한다.

연산군은 피가 거꾸로 치솟는 분노로써, 생모 윤씨가 사사당할 당시 벼슬자리에 있었던 생존한 정승과 판사를 비롯해 관련 있다 싶은 이는 모조리 잡아들여 생모를 죽인 방관죄로 몰아 죽인다. 갑자사화(1503년)의 피바람이다.

연산이 어렸을 적부터 행여 하는 노파심에 철저히 보호·관리했던 인수대비였지만 세손 연산군의 발길질에 한 순간 숨을 거두었고, 생모의 원수를 갚고자 한으로 응어

리진 연산군의 패륜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시정잡배도 아니할 망나니짓을 하며 큰 어머니(성종의 후실)까지 겁탈하는 등 온갖 패악을 일삼은 가운데 이미 죽은 한명회는 부관참시(묘를 파헤쳐 시신의 목을 자르는 형벌)을 당한다.

조선왕조가 뿌리내린 폐습·패악으로, 망국의 원인을 제공했다는 파벌·파당싸움 또한 바로 이 무렵에 심어진다.

복수는 또다른 원한 만들어

폐비 윤씨 생전 측근이었기에 연산군의 두터운 신임을 얻어 무도한 권력에 기생하여 아부하며 출세한 간신 유자광, 임사홍 같은 이들이 득세하면서 그들의 독주를 견제하는 훈구파 강희맹, 김일손 세력 간에 패가 갈리고 편이 나누어지며, 서로를 뒤흔들적으로 간주해 갖은 음해와 중상모략, 거짓말로 씨 죽고 죽이는 피와 한이 인맥을 형성하며, 뿌려진 악연이 파당·파벌의 진원지다.

그렇게 뿌려져 잠복된 갈등의 씨가 비로소 움을 틔운 것은 선조(7년) 연간 사림(士林)이 김효원과 심의겸을 중심으로 동인과 서인이 편으로 갈라지며, 시비와 한갓 무익한 공론만을 일삼은 이때를 고질적인 파당의 1차 시기로 하여, 1590년 조선 통신사 일행으

로 일본에 갔던 동인 계열의 김성일과 서인 계열의 황윤길에 국사 대신, 해묵은 감정에 치우쳐 서로 다른 일본 정세를 조정에 거짓 보고하면서, 왜적의 침략은 없을 거라는 벼슬아치들의 낙관론에 무방비로 임진왜란을 맞게 되고, 조선은 7년간 왜적들의 만행과 분탕질로 생지옥이 되어, 민생은 바짝 마른 나뭇잎처럼 나뒹굴며 피폐해졌다.

무릇 사람이 행하는 행실, 거기에는 비록 눈 뜨고 지켜보는 이가 없을지라도 반드시 상응하는 작용이 따르니, 책략가 한명회의 피를 빌려, 중조부(세조)가 씨뿌린 악행(계유정난)이 50년 모진 세월을 두고 왕조의 피를 말리며, 나타난 폭군의 학정으로 무수한 사람들이 다시금 무참한 죽음을 당한 이 사건은, 의도적으로 씨부린 인과 연이 자생적으로 무르익으며 <금삼(錦森)>의 피, 연산을 잉태해 낳았고, 보위에 오른 연산군은 기다렸다는 듯이 선대가 저지른 악업과 같은 방식 그대로 원한에 사무친 원혼들의 넋을 달래듯 피로써 양값을 하고만 이 비극은 인간 선악행위를 따르는 인연·인과의 역연함을 더 이상 설명이 필요치 않을 만큼 확연히 일깨우는 인과응보의 실증이다.



까꾸산다 부처님 이야기

영일스님 / 법왕사 법사



지난호(2018년 3월호, vol. 279)에서는 보살(수메다)이 베사부 부처님(연등불로부터 21번째 부처님)의 시대에 태어나서 수기를 받는 내용을 살펴보았다. 베사부 부처님은 탐욕과 갈망의 족쇄를 잘라버리고 깨달음을 얻은 후, 법륜을 굴려서 수많은 중생을 통찰로 이끈다. 그 때 고타마 석가모니 부처님은 '수닷사나'라는 왕족이었는데, 상가와 베사부 부처님에게 값비싼 보시를 한다. 그러자 베사부 부처님은 '수닷사나'에게 '미래에 고타마 붓다가 될 것이다'라는 수기선언을 하신다. 베사부 부처님은 6만년 동안 세상에 머물면서 많은 중생을 제도한 후, 케마숲 사원에서 반열반에 드신다.

우리 시대의 부처님인 고파마 석가모니 부처님이 최초로 붓다(Buddha)가 될 것을 결의한 때인 연등부처님(dipankara-Buddha)부터 시작하여 까싸빠 부처님(kassapa-Buddha)까지 총 24분의 부처님들로부터 붓다가 될 것이라는 수기를 받는다. 이번 호에서는 연등불에서부터 시작하여 22번째의 붓다인 까꾸산다불(kakusandha-buddha)에게 수기 받는 내용을 불종성경(Buddha-vamsa)을 통해 보기로 한다.

[불종성경(Buddha-vamsa)_CST4: KN-Bvm, ch.24, vs.1-27) 의역]

_*(아래 주석 1번 참조)

1. 까꾸산다 부처님 이야기_part 1

[vs. 1-2] 베사부 부처님에 이어서, 정등각자이며, 두 발 가진 생명 가운데에서 최고인 부처님이 출현하시는데, 까꾸산다(kakusandha)라는 이름을 가지고 계신다. 그는 한량없고, 접근하기 어렵다. 모든 존재적 번뇌를 제거하고, 바른 행을 완성하고, 마치 사자가 우리를 부수는 것처럼, 최고의 바른 깨달음을 얻는다.

[vs. 3-5] 세상의 지도자인 까꾸산다 부처님이 법의 바퀴를 굴릴 때, 4만 꼬띠(4천억)의 중생에게 법에 대한 통찰이 있게 된다(첫 번째 통찰). 하늘 허공에서 이중신통을 발휘한 후, 3만 꼬띠(3천억)의 신과 인간을 깨닫

게 한다(두 번째 통찰). 이어서 인간과 천신들 그리고 야차들에게 사성제를 설하실 때,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그들에게 법의 통찰이 있게 된다(세 번째 통찰).

[vs. 6-7] 까꾸산다 세존에게 하나의 모임이 있는데, 번뇌(āsava)가 파괴되고, 때가 없고, 마음이 평화로운 그러한 모임이다. 그때 4만 명이 모이는데, 잘 길들여진 경지에 도달하고, 번뇌(āsava)의 적 무리가 파괴된 모임이다.

_*(아래 주석 2번 참조)

2. 수기

[vs. 8-9] 그때 나(고파마 부처님)는 케마(khema)라는 왕족(khattiya)이었는데, 여래와 승자의 아들들에게 많은 보시를 한다. 발우와 가사옷, 안약, 감초 등을 보시하는 등, 원하는 모든 것을 뛰어나게 준비한다. [아래 계승 13에서 출가하는 내용참조]

[vs. 10-11] 그러자 까꾸산다 부처님은 나에게 말씀하신다. “이 상서집(bhadda-kappa)에 이케매는 붓다가 될 것이다. 힘찬 정진을 하고, 하기 어려운 고행을 하며, 앓싸타(assattha)나무 아래에서 완전히 깨닫고, 큰 명성을 얻게됨을 알게 될 것이다. 그의 어머니는 ‘마야(māyā)’라 하고, 아버지는 숫도다나(suddhodana), 그리고 그는 고파마(gotama)가 될 것이다. 켈리따(kolita : 대목

건련)와 우빠뗏싸(upatissa : 사리뼉따)가 그의 상수 비구 성문제자가 될 것이며, 아난다(ānanda)라는 시자가 그 승자(jina)를 시봉할 것이다. 케마(khemā)와 우빨라완나(uppalavaṇṇā)가 그의 상수 비구니 성문제자가 될 것이며, 그 세존이 깨달음을 얻은 나무는 앓싸타(assattha)라고 할 것이다. 찌따(citta)와 하탈라와까(hatthālavaka)가 그의 상수 재가 남성신자가 될 것이며, 윗따라(uttara)와 난다마따(nandamātā)*가 그의 상수 재가 여성신자가 될 것이다. 그리고 이 고탓마 부처님의 수명은 100년 정도가 될 것이다._*(아래 주석 3번 참조)

비할데 없는 위대한 성자(까꾸산다 부처님)의 말을 듣고, 신과 인간들은 기뻐하면서 ‘이것이 불종자(buddha-bija)이다.’라고 생각한다. 부처님의 선언이 계속되자, 일천세계의 신들은 박수를 치고, 웃으면서, 합장한 손으로 경의를 표한다. [그리고 말하기를] “만약 우리가 이 세상의 수호자(까꾸산다 부처님)의 회상에서 실패한다면, 먼 미래에 이 [고따마] 부처님과 대면할 것이다. 마치 [지금] 강을 건너고자 하는 사람들이 저 쪽 강 언덕에 이르는 여울목에 이르지 못하자 [나중에] 좀더 낮은 쪽의 여울목을 타고 큰 강을 건너는 것처럼, 그와 같이 [지금] 우리가 이 [까꾸산다]부처님의 말씀을 놓친다면 먼 미래에 저 [고따마] 부처님과 대면하

여 [그의 가르침을] 알게 될 것이다.” _*(아래 주석 4번 참조)

[vs. 12_]내(케마=미래의 고탓마 부처님)가 이 말을 들은 후에, 마음이 더욱더 기뻐지고, 10바라밀(pārami)을 충족하기 위한 결의를 더욱더 다진다.

3. 까꾸산다 부처님 이야기_part 2

[vs. 13-15_]까꾸산다 부처님이 살던 도시의 이름은 케마와띠(khemāvati)이고, 내가 케마(khema)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을 때, 일체지를 찾아서 그까꾸산다 부처님의 회상에서 출가한다. 그 까꾸산다 부처님의 아버지는 앓기닷타 바라문(brāhmaṇa aggidatta)이고, 어머니는 위사카(visakhā)이다. 그곳 케마라는 도시에는 까꾸산다 정등각자의 많은 종족이 살고 있다. 인간들 중에서 뛰어나고, 최고이며, 훌륭한 출생신분과 큰 명성을 가지고 있다.

[vs. 16-17_]4천년 동안 집에서 머무는데, ‘까마(kāma), 까마완나(kāmavaṇṇa), 까마숫디나마(kāmasuddhi)’라는 세 개의 뛰어난 궁전을 가지고 있다. 3만명의 아름답게 장식된 여인들이 있으며, 부인의 이름은 로찌니(rocini)이고, 아들은 윗따라(uttara)이다.

[vs. 18-19] 인생의 네 가지 특징적인 모습을 본 후에, 수레를 타고 출가한다. 그리고 승자는 8개월간 고행정진을 하신다. 범천의 요청이 있자, 위대한 지도자(vināyaka), 큰 영웅(mahāvira), 최고의 인간(naruttama)인 까꾸산다 부처님은 범의 바퀴를 굴린다.

[vs. 20-22] 스승이신 까꾸산다 부처님의 최고 상수 비구 성문제자의 이름은 위두라(vidhura)와 산지와(sañjiva)이고, 시자는 붓디자(buddhija)이다. 최고 상수 비구니 성문제자의 이름은 사마(sāma)와 째빠(campā)이다. 그 세존이 깨달은 나무는 시리사(sirisa)라고 불린다. 으뜸가는 재가 남성신자는 앓쭈타(accuta)와 수마나(sumana)이고, 으뜸가는 재가 여성신자는 난다(nandā)와 수난다(sunandā)이다.

[vs. 23-25] 대성자이신 까꾸산다 부처님의 신장은 40라타나(18m)인데, 황금빛이 사방으로 10요자나(110km) 정도 확산된다. 그 대성자의 수명은 4만년 정도인데, 그렇게 오래 사는 동안 많은 사람들이 고해의 바다를 건너게 한다. 범의 상점(apaṇa)을 널리 퍼뜨리고, 남자, 여자, 그리고 천신들에게 사자후를 한 후, 제자들과 함께 반열반에 든다.

[vs. 26-27] 여덟 가지의 특징적인 목소리

(MN91, n. 387 : 뚜렷함, 잘 이해됨, 부드러움, 듣기 좋음, 낭랑함, 조화로우음, 깊음, 공명함)를 갖추고, 항상 흠없는 그 모든 것이 사리진다. 형성된 모든 것은 공하지 아니한가? 까꾸산다 부처님, 뛰어난 승자께서는 케마 숲사원에서 반열반에 드신다. 거기에 답이 세워지는데, 높이가 하늘로 1가부타(3km) 정도 된다. <계속>

*주석1: 여기의 불종성경은 세존이 정각 후 처음 자신의 고향인 까뻬라와투를 방문할 때 자신의 친족들에게 이 중신통을 보인 후에 설하였다고 한다._[KN-Bvm-a-gaṇṭharambha-kathā]

*주석2: 여기에 나오는 큰 숫자들에 대해서는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오히려 매우 '큰 수'라고 이해하는 것이 더 적절해 보인다.

*주석3: 불종성경(KN-Bvm.ch.2, n. 69)에서는 옷따라와 난다마따를 마치 두 사람인 것처럼 기록하지만, 앙굿따라 니까야(AN1, n. 262)에서는 한 사람으로 나타난다.

*주석4: 원문의 계송 13-14번에서는 수기와 관련된 내용이 대부분 요약되어 있는데, 곧단나 부처님 이야기에 나오는 내용_(vs 11-21)에 근거하여 생략된 부분을 보완한다.





삶 속의 진리 경전에 담다

불교의 경전은 석가모니 부처님과 그 제자들의 가르침을 모아놓은 것을 말한다. 불교의 경전은, 1차 결집은 석가모니 부처님의 말씀을 제자들이 다시 암송하는 것이었다. 즉 현재처럼 책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같이 암송하여 부처님의 말씀임을 확인하는 정도였다. 그 후 3차 결집 때 비로소 문자화되면서 책으로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경전은 시대적과 사상적으로 분류할 수 있다. 시대적으로는 크게 경(經), 율(律), 논(論) 세 가지로 분류한다. 사상적으로는 소승경전과 대승경전으로 구분할 수 있다. 소승경전에는 아함경, 열반경, 범망경, 법구경, 유교경 등이 있고 대승경전에는 대품반야경, 반야심경, 금강경, 법화경, 무량의경, 유마경, 화엄경, 무량수경, 아미타경, 능가경 등이 있다.

옥야경(玉耶經)

〈옥야경〉은 오늘날에도 경종을 울릴 만한 부녀자의 도리를 일곱 가지 부류별로 나누어 설명을 함으로써 부처님의 말씀이 가장 현실적으로 다가오고 있음을 알게 해주는 경전이다. 다시 말해 부처님의 가르침은 결코 이상과 관념의 세계만을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같이 숨쉬며 살아가고 있음을 보여 주는 귀중한 경전이 다름 아닌 〈옥야경〉이다.

산스크리트어 원전으로는 전하지 않는 단권으로 된 짧은 경이나, 한역본으로는 4종이 있다. 중국 동진(東晉)의 축담무란이 번역한 〈옥야경〉을 비롯하여 서진(西晉)의 〈옥야녀경〉(실역)과 구나발타라가 번역한 〈아속달경〉, 증일아함 제49 〈비상품〉 중의 1경으로서 동진의 승가제바가 번역한 경 등이다.

이 경의 주인공은 경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신심이 돈독했던 급고독(給孤獨) 장자의 며느리인 옥야이다. 옥야는 장자의 아들에게 시집을 왔다고는 하나 친정의 부귀함만을 믿고서 항상 아내의 도리를 위반하는 행위가 많았다. 그래서 장자가 부처님을 청하여 가르침을 원하므로 부처님이 부녀자의 도리를 옥야에게 말씀하기에 이른다.

이렇듯 아내의 도리를 다하지 못함에 대해 부처님께서 설한 일곱 가지 아내란 어머니 같은 아내, 누이동생 같은 아내, 스승 같

은 아내, 부인다운 아내, 노비 같은 아내, 원수 같은 아내, 살인자 같은 아내 등이다. 팔리어 본에서는 살인자 같은 아내, 도적 같은 아내, 지배자 같은 아내, 어머니 같은 아내, 자매 같은 아내, 친구 같은 아내, 노비 같은 아내 등 7종을 열거하고 있다.

육도집경(六度集經)

〈육도집경〉은 부처님이 보살이었을 적의 이야기 즉 전생담(자타카)을 모아 기록한 경전이다. 전체 91개의 전생담을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라는 육도(바라밀)에 각각 배당하여 모았기 때문에 〈육도집경〉이라 한다. 중국 오나라 때 강승회(康僧會)가 8권으로 번역한 것이다.

구성을 보면 1권에서 3권까지 25장은 보시에 관련된 부분이고 4권 15장은 지계, 5권 13장은 인욕, 6권 19장은 정진, 7권 9장은 선정이고 8권 9장은 지혜 즉 명도(明度)로 순라태자 본생 등을 소개하고 있다. 특히 대승불교의 핵심을 이루는 보살행을 고양하는 데에 주된 목적을 두고 편찬된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부처님의 전생이야기와 함께 미륵의 전생이야기가 종종 등장하고 있다는 점과 〈반야경〉을 이미 알고 있으므로 〈도행반야(道行般若)〉와 같은 계통에 속할 것이라는 점 등이 특색이다. 물론 이 경전에 의하면 육도는 불도를 수행함에 있어서 극히 필요 불가결한 것이요, 천태지자대

사가 <법계차제(法界次第)>에서 말한 바와 같이 보살의 정행(正行)의 근본으로 정의되고 있다.

성문(聲聞)과 연각(緣覺)은 사제와 십이인연을 관하여서 응분의 깨달음을 얻지만 보살은 이 육바라밀을 실천, 수행하여서 생사의 바다를 건너 열반의 저 언덕에 이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원전은 사라져 전하지 않으나 한역은 이른바 고역(古譯)에 속하는 3세기의 것이다. 내용 등으로 유추해 볼 때 2세기에는 그 근간이 성립되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승우(僧祐)의 <출삼장기집> 등에 의하면 달리 <육도무극경>, <도무극집>, <잡도무극경>이라고도 한다.

법구경(法句經)

원래 명칭은 팔리어의 담마파다(Dhamma pada)이다. 담마란 ‘인간의 진리’란 뜻이고 파다란 ‘말씀’을 의미하는 것으로, 원전은 팔리어 5부 중 소부(小部)에 포함되어 있다.

이 경은 전체 423편으로 이루어진 시집이다. 주제에 따라서 대구(對句), 불방일(不放逸), 마음, 어리석은 자, 어진 자, 아라한, 늙음, 자기(自己), 세속, 부처님, 안락, 사랑하는 것, 성냄, 더러움, 진리에 태어남, 수행승, 바라문 등 26장으로 나뉘어져 있다.

주로 단독의 시로 되어 있으나 때로는 둘

또는 여러 편의 시가 무리를 이루고 있다. 보통 4구(句)로 구성되어 있어 문학작품으로도 향기가 높다. 이러한 시들은 물론 부처님이 직접 읊은 것은 아니나 부처님의 요긴한 뜻이 시의 형태로 되어 초기 불교 교단 내에서 널리 전해지고 있던 것을 모아 기원전 4~3세기경에 편집한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법구경>은 방대한 불교 성전 중에서도 가장 오래된 것으로서 불교의 도덕관과 사회관 등의 교화 내용을 담고 있으며, 부처님의 참뜻을 비교적 원초적인 형태로 전하고 있다. 따라서 예로부터 불교도들에게 가장 널리 애송되어 왔고 가장 오랫동안 읽혀진 불교 교훈집으로서 가치가 높다.

이 경에 실려 있는 주옥 같은 한편 한편의 시는 순수 소박하고 간단명료하면서도 매우 깊은 뜻을 시사하고 있다. 번뜩이는 지혜로써 인생의 궁극적인 삶의 목표를 제시하고 있는가 하면 부처님의 투철한 종교적인 인품을 느끼게 한다. 이른바 ‘동방의 성서’라고 불릴 정도로 출가, 재가자는 물론 일반인들까지도 반드시 읽어 보아야 할 교양서적으로 손꼽히고 있는 경전이다.

<법구경>이 널리 애송되면서 이본(異本)도 많다. 먼저 이 경과 동일계 경전으로는 <법구비유경>(4권), <출요경>(30권), <법집요송경>(4권)이 있고, 이본으로는 한역 <법구경>(2권), <법구경>, <1천품>, <간다라법구경> 등을 들 수 있다.

사십이장경(四十二章經)

AD 67년경 인도의 가섭마등(迦葉摩騰)과 축법란(竺法蘭)이 당시(후한)의 황제인 효명제(孝明帝, 58~75년)의 보호 속에서 번역한 중국 최초의 한역 경전이다.

일상의 수행에서 중요한 42가지 덕목을 여러 경전에서 간추려 놓은 경으로, 특히 수행을 중요시 하는 선가에서는 불조삼경(佛祖三經)의 하나로 손꼽고 있는 경전이다.

고려대장경(팔만대장경)에 수록된 이 경의 첫머리에 보면, 효명제가 꿈에 금인(金人)이 나타나 그의 궁전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고 신하를 대월지국에 보내 불교 경전을 얻어 오도록 하였는데, 이때 베껴온 것이 바로 〈사십이장경〉이라고 한다. 따라서 이 경전은 문헌상 중국에 들어온 최초의 경전이기도 하다.

이 경의 내용을 살펴보면 아함의 내용을 가장 많이 담고 있으며, 잡아함이나 〈법구경〉과도 같은 경집의 성격을 띠고 있다. 때문에 이 경의 모체는 아함과 〈법구경〉 등이었다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다.

그러나 고(苦), 무상(無常), 무아(無我), 애욕(愛欲)의 단절 등의 소승적 가르침뿐만 아니라, 자비와 인욕의 실천, 보시의 권장과 참회의 강조 등 대승적인 요소들도 모두 갖추고 있는 매우 교훈적인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와 같이 이 경은 매우 쉽고 간결한 불교의 중요한 덕목들을 담은 입문서로

서 널리 애독되어 왔다.

이본(異本)도 10여 종에 이르고 있는데, 이러한 이본들은 본문 자체에서 증장(增長), 발전된 흔적이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로 말미암아 이 경전을 중국에서 만들어진 위경(爲經)으로 보는 학자도 있다. 이본은 크게 고형본(古型本), 명장본(明藏本), 보림전본(寶林傳本) 등으로 분류된다.

고형본은 고려대장경과 송원대장경에 수록되어 있는 것으로 가섭마등과 축법란이 번역한 원형과 가장 가깝다. 명장본은 명대장경에 수록된 것으로 고형본보다 증장, 발전된 흔적이 엿보인다. 보림본전은 송대 이후 선가에서 유행된 것으로, 선가에서 일상적인 경전으로 간주했다고 하여 불조삼경의 하나가 되었다.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로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자



불기 2562년 5월 22일(음 4월 8일)은 부처님오신날이다.

2562년 전, 이 땅에 오신 석가모니 부처님은 오직 중생을 구제하겠다는 일념으로 뼈를 깎는 고통에 굴하지 않고 고행을 거듭한 끝에 마침내 정각(正覺)을 이루셨다. 석가모니 부처님은 BC 563년 음력 4월 8일 해뜰 무렵 룸비니 동산의 무우수 나무 아래서 북인도 카필라 왕국의 왕 슈도다나와 마야부인 사이에서 태어나셨다. 석가모니 부처님은 태어나자마자 동서남북으로 일곱걸음을 걷고 난 뒤, 두 손으로 하늘과 땅을 가리키면서 사자후를 외쳤다.

“하늘 위 하늘 아래 모든 생명은 존귀하다.

세계의 고통 받는 중생들을 내 마땅히 편안케 하리라.”

(天上天下 唯我獨尊 三界皆苦 我當安之)

이 외침은 장차 고통에 빠져 허덕이고 있는 모든 중생을 구제하겠다는 선언, 즉 고통의 바다에서 헤매고 있는 눈먼 중생들을 위하여 걸림 없이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방법을 제시하겠다는 선언인 것이다.



부처님은 태자의 신분을 버리고 6년간의 고행 끝에 부다가야의 보리수나무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은 후 녹야원에서 처음으로 다섯 비구를 상대로 법을 설하였고, 이후 45년 동안 인도 전역을 다니면서 중생들을 올바른 삶의 방향으로 인도하셨다.

부처라는 말은 산스크리트어 ‘붓다’(Buddha)를 따서 만들었으며, 깨달은 사람을 뜻한다. 깨달음이란 단순한 개념이나 관념이 아니며, 부처님이 체험을 통하여 증득한 것이다. 깨달음에 이르는 길을 가르쳐 주신 그 가르침 또한 배워서 알아야 하는 지식에 그치는 것이 아니며, 오로지 그 가르침을 믿고, 그에 따라 실천 수행해야 한다. 깊고 참된 진리를 깨달은 이는 마침내 생사의 괴로움이 완전히 없어진, 불교 최고의 이상인 열반(涅槃)을 성취한다.

부처님은 모든 이들의 이익과 안락을 위해, 고통 속에 허덕이는 중생들을 구제하기 위해 이 사바세계로 내려 오셨다. 그 분이 나신 곳은 호화찬란한 궁궐이 아니라 길가의 동산 위다. 길에서 나서 길에서 살다 가신 우리 스승의 탄생은 그 자체가 중생에 대한 끝없는 연민과 사랑의 표현인 것이다.

부처님오신날을 맞이하여 불자들은 부처님의 탄생을 경배하는 것은 물론 ‘참 나’를 찾겠다는 분발심을 내고 부처님의 중생구제 원력을 세워 실천하도록 해야 하겠다. 중생의 병의 종류에 맞춰 약을 주셨던 부처님과

같이 우리 불자들은 이 시대의 중생의 고통에 맞게 처방을 해주는 지혜를 가져야 한다.

석가모니의 탄생일은 불탄일(佛誕日) 또는 욕불일(浴佛日)이라고도 하나, 민간에서는 흔히 초파일이라고 한다. 석가의 탄생일이기 때문에 원래는 불가(佛家)에서 하던 축의행사(祝儀行事)였으나 불교가 민중 속에 전파됨에 따라서 불교의식도 차츰 민속화되기에 이르렀다. 특히 신라는 여러 가지 불교 행사가 성했는데, 무열왕과 김유신 장군이 불교를 호국(護國)의 바탕으로 참여시키는 정책을 유지하면서 불교행사는 이전부터 전해오던 세시행사와 더불어 자연스럽게 병존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신라의 팔관회(八關會)는 불교행사가 신라의 세시풍속으로 승화된 대표적인 경우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사월 초파일은 불도의 행사가 신라의 호국불교로 승화된 이래 후삼국을 거쳐서 고려조에 이르는 동안 우리의 민속과 동화되었던 것이다.

『삼국사기(三國史記)』의 백제와 고구려 본기에는 불도의 행사가 세시의 행사로 거행되었다는 기록은 없으나 신라본기에서는 석가모니 탄생일을 팔관회로 거행했다는 기록이 있다. 또 『고려사(高麗史)』에 따르면, 왕성(王城)에서 시골 마을에 이르기까지 정월 대보름에는 14일, 15일 이틀간 저녁에는 연등(燃燈)을 하던 풍속이 있었으나 최이(崔

怡)가 4월 8일로 옮겨서 하게 하였다고 한다.

결론적으로 사월 초파일은, 불교행사로 전래되었다가 민간의 세시풍속과 자연스럽게 동화되면서, 신라의 팔관회, 고려의 연등회 등을 거치면서 완전히 정착되어 오늘에 이른 것이라 할 수 있다.

깨달음으로 인도하는 지혜의 상징, 연등

부처님오신날이 다가오면 전국 사찰뿐만 아니라 거리 곳곳에도 연등의 물결로 장엄된다. 범어로 등은 ‘디파(di-pa)’라고 하는데, 곧 ‘지혜’를 상징한다. 불교에서 등불이란 무명(無明)의 어둠을 밝히는 지혜의 광명을 말한다. 또한 등불을 공양하는 것은, 과거 인도로부터 깨달은 자에 대한 존경과 찬사의 표시를 의미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그 등불을 성인들 앞에 올리며 영원히 꺼지지 않는 등불이 되어 모든 중생들의 어두운 마음을 밝게 해주고, 나의 모든 기원이 성취되어 질 수 있기를 바란다.

연등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빈자일등(貧者一燈)’이다. 『현우경(賢愚經)』 ‘빈녀난타품’에 나오는 이야기로서 부자가 공양한 만 개의 등보다 가난한 자의 정성이 담긴 한 개의 등의 공덕이 더 큰 것임을 가르치고 있다.

부처님이 살아계실 때, 가난해 걸식하면서 살던 한 여인이 있었다. 어느 날 부처님

께서 그 여인이 살던 성을 방문하시자 모두들 부처님을 맞이할 연등회 준비로 바빴다. 이 여인도 등불을 켜 부처님께서 오시는 길목을 밝히고 싶었으나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다. 이에 이 여인은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동전 두 닢을 빌어 기름을 샀다. 그리고 부처님께서 지나가실 길목에 등을 밝히며 “저는 지금 빈궁해 이 작은 등불로 부처님께 공양합니다. 이 공덕으로써 저로 하여금 내생에 지혜의 광명을 얻어 일체 중생의 어두움을 없애게 하소서”라고 서원이다. 밤이 지나 다른 등불은 모두 꺼졌으나 그 여인이 공양한 등만이 홀로 불을 밝혔다. 이에 부처님 제자인 목련존자가 날이 밝아 불을 끄려고 했지만 꺼지지 않았다.

이때 부처님께서 “아난다야, 부질없이 애쓰지 마라. 그것은 가난하지만 마음 착한 여인이 큰 서원과 정성으로 켜 등불이니, 결코 꺼지지 않으리라. 그 등불의 공덕으로 그 여인은 미래세에 필경 부처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렇듯 부처님께 등을 바치는 것을 ‘연등공양’이라고 했다. 등을 밝히는 공덕은 경전 곳곳에서 드러난다. 『시등공덕경』에는 몸에 아픈 병이 없이 건강하며, 고운 음성과 밝은 눈을 얻게 되고 좋은 재물을 얻어 생활이 안정되고, 마음에 두려움이 없고, 남과 다투는 일이 없어진다고 했다. 그리고 설령 부처님께 작은 등을 공양하여도 그것으

로 받는 복덕은 무궁무진하고, 사찰이나 탑에 등을 밝히면 현세에는 세 가지 청정한 마음을 얻을 것이고, 내세에는 삼십삼천에 태어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부처님 말씀에 ‘법등명 자등명(法燈明 自燈明)’이 있다. 『열반경』에 나오는 이 말은 부처님의 마지막 유훈 가운데 하나다. 열반을 맞은 부처님에게 아난이 슬퍼하며 누구를 의지해야 하냐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다. 곧 ‘진리를 등불 삼고 자기 자신을 등불 삼으라’는 것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인 진리를 등불에 비유하기도 한다. <화엄경>에는 “믿음을 심지로 삼고, 자비를 기름 삼으며 공덕을 빛으로 해 탐진치 삼독을 없앤다”며 등을 다는 의미를 설명하고 있다.

이와 같이 등 공양은 부처님의 진리의 빛을 밝히는 것이자 부처님을 공양하는 것이며, 동시에 자신의 무명을 밝히고 죄업을 참회하는 뜻으로 올리는 것이니, 그로 인해 받는 복과 공덕은 한없이 큰 것이다.

관욕으로 세속의 인연 씻다

관욕(灌浴)이란 다겁생래(多劫生來)로 쌓아온 영가(靈駕)의 번뇌를 청정케 해주려는 의식으로, 청정한 마음자리에서 본다면 자신을 규정하려는 모든 것은 번뇌일 수밖에 없음으로 삼보의 가피력에 의해 온갖 세속 인연을 씻고 청정한 본래 마음을 회복케 해주려는 것이다.

관욕이란 부처님을 목욕시켜 드린다는 뜻으로 관불(灌佛), 욕불(浴佛), 관정(灌頂)이라고도 한다. 관욕의식은 석가모니 부처님이 탄생하셨을 때 아홉 마리 용이 나타나 오색 향수로 부처님을 씻어 주었다는 것에 근거하여 오늘날에도 부처님오신날이 되면 각 사찰에서 행해지고 있다.

관욕의식은 우리 스스로가 모든 탐욕의 때를 씻는 것을 상징한다. 이것은 우리가 모든 더러운 생각에서 벗어나 깨끗한 지혜를 성취하며 부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간절한 원을 세우며 봉행하는 엄숙한 의식이다. 이에 우리 불자들은 관욕을 통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탐욕을 없애고 마음을 청정하게 하여 진정한 부처님의 제자로 다시 태어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봄의 불청객, 춘곤증

적절한 휴식과 운동, 영양섭취로 즐거운 봄 만들자



추운 날씨가 풀리고 따뜻한 바람이 부는 봄이 왔습니다. 기다려왔던 봄 햇살이지만 막상 봄을 맞이하니 몸이 나른해지고 피로감, 졸음, 식욕부진, 집중력 저하 등의 증상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바로 ‘춘곤증(春困症)’입니다.

‘춘곤증(春困症)’은 계절적 변화에 생체 리듬이 즉각적으로 적응하지 못해서 생기는 일시적인 증상으로, 봄철에 피로를 많이 느끼는 증상이라고 해서 춘곤증이라고 불립니다. 공인된 병명이 아니며 ‘계절성 피로감’, ‘봄철 피로 증후군’, ‘식곤증’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시기적으로 2월 하순부터 4월 중순 사이에 흔히 나타나는 일종의 계절병으로 이유 없이 피곤하며 졸음이 자주 와서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는 사람이 많습니다. 봄이 되면 활동량이 늘어나서 단백질, 비타민, 무기질 등 각종 영양소의 필요량이 증가하게 되



‘춘곤증(春困症)’은
계절적 변화에 생체 리듬이
즉각적으로 적응하지 못해서
생기는 일시적인 증상입니다.

는데 이를 충분히 섭취하지 못해 생기는 영양상의 불균형이 춘곤증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특히 식사를 끝내면 혈액이 소화기관으로 몰려 뇌에 공급되는 산소량이 줄어들면서 더 졸음이 오게 되며 봄에는 입학, 졸업, 취직 같은 개인의 신상변화가 많은 시기이므로, 이에 따른 심리적 부담감으로 인한 스트레스의 축적이 춘곤증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춘곤증이 더욱 자주 걸리는 사람으로는 겨울 동안 운동이 부족하고 평소 피로가 쌓였던 사람 혹은 저혈압이나 빈혈이 있는 경우 춘곤증이 심하게 나타납니다. 소화기가 약하고 추위를 잘 타는 사람 혹은 스트레스가 심하고 평소 환경 변화에 따른 적응능력이 떨어진 사람들 또한 더욱 자주 걸리게 됩니다.

이처럼 춘곤증이라는 건 우리가 겨울 동안에 인체의 신진대사 같은 것들의 활동이 적었던 때에 비해 봄을 맞이해서 활발해지

기 시작하며 생기게 되는 피로 증상을 말합니다. 자연스럽게 누구나 생길 수 있는 증상으로 의학적 질병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겨울에서 봄이 되는 사이에 일어나는 증상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증상입니다만 장기간 지속될 경우 수면 장애나 만성피로 등으로 이어져 봄철 건강을 해치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봄에 찾아오는 불청객 춘곤증의 원인과 대처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비타민과 무기질의 보충입니다. 날이 따뜻해지고 활동량이 늘어나게 되면 신진대사 역시 평소보다 활발해집니다. 그만큼 몸은 좀 더 많은 영양분을 필요로 합니다. 특히 비타민B1이나 비타민C, 무기질 등이 부족할 경우 피로감이 쉽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비타민B1은 쌀이나 콩에 풍부하기 때문에 춘곤증 예방을 위해 잡곡밥을 드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간식으로



가벼운 스트레칭과 함께
잠간의 휴식은
밤에 잠이 안 오는 커피보다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비타민C가 풍부한 과일을 먹어주는 것도 좋겠습니다.

둘째, 규칙적인 운동입니다. 춘곤증은 기
후나 환경 변화로 인해 몸에서 소비되는 에
너지가 많아 쉽게 피곤함을 느끼게 되는 증
상입니다. 가벼운 운동을 통해 에너지 소비
의 밸런스를 잡아주는 것이 춘곤증 예방
및 탈출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과격한
운동보다는 가볍게 땀을 흘릴 수 있는 달리
기나 자전거가 좋으며, 직장 내에서는 2~3시
간마다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근육의 긴장
을 풀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가벼운 스트레
칭과 함께 잠간의 휴식은 밤에 잠이 안 오
는 커피보다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특
히 최근에는 거북목증후군과 손목터널증후군
등 직장인 질환 예방으로 스트레칭의 중요
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셋째, 일정한 수면 시간 유지입니다. 춘

곤증은 기후나 환경 변화로 인해 몸에서 소
비되는 에너지가 많아 쉽게 피곤함을 느끼
게 되는 증상입니다. 춘곤증을 예방하기 위
해서는 충분한 수면이 필요한데요. 하루에
7~8시간 숙면을 취해야 하루의 피로를 제대
로 풀 수 있습니다. 특히 늦게까지 TV를 본
다거나 게임을 하는 것은 춘곤증을 가중시
키는 안 좋은 습관입니다. 또한 주말에 몰
아서 늦게까지 자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경우 대부분 피로가 더 심해지므로 매일매
일 규칙적인 습관을 통해 우리의 몸이 새로
운 환경에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춘곤증을 예방하는 지름길입니다.

넷째, 스트레스 해소입니다. 봄 환절기는
개학, 입학, 취직 등 환경 변화도 잦은 기간
입니다. 이러한 주변 환경 변화 역시 뇌에
알게 모르게 스트레스를 가중시켜 생체리
듬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자신만의
스트레스 해소 방법을 통해 긍정적인 마음

가짐을 유지하는 것 또한 춘곤증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다섯째, 쾌적한 실내 환경을 조성합니다.

겨울에는 추위로 환기가 어려웠다면 봄을 맞아 집 안 공기를 정화시켜주는 것이 좋습니다. 공기가 오염된 실내에 오래 있으면 피로감이 가중될 수 있으므로 환기를 자주 해 공기가 순환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또한 공기 정화 식물을 키우는 것도 좋습니다. 실내의 일산화탄소, 휘발성 유기화합물 등 건강을 해치는 오염물질을 제거할 뿐만 아니라 정서 안정에도 도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봄이 오면 춘곤증이 찾아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봄에 취해 한없이 늘어지고 무거워지는 우리의 몸, 몸이 먼저 봄을 느낀다는 사실이 놀랍습니다만 따듯하고 맑은 날씨에 춘곤증으로 봄을 즐기지 못한다면 너무 안타깝지 않을까요?

한의학에서는 봄이 되면 일찍 일어나 몸을 느슨하게 하고 산책을 해 봄의 기운을 받으라고 합니다. 규칙적인 식사와 영양섭취, 가벼운 스트레칭, 충분한 숙면 등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일이니 내일부터라도 나른하고 피곤한 봄이 아닌 생기발랄한 봄의 기운을 맞이하여 긴장된 몸과 마음을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춘곤증에 좋은 음식



냉이 | 무기질, 철분, 칼슘, 각종 비타민, 단백질 등 다양한 영양소가 함유되어 있다. 특히 비타민 B1과 C가 풍부해 소화에 도움을 주고 허약한 분들에게 좋다고 알려져 있다. 또 소변을 잘 배출해 주고 붓기를 없애고 눈의 피로회복에도 좋다고 한다. 하지만 냉이에 독성분이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어 끓는 물에 데쳐 먹는 것이 안전하다고 한다.



달래 | 비타민C 등 각종 비타민과 무기질이 함유되어 계절 변화로 인해 늘어질 수 있는 몸에 활력을 줘서 춘곤증 예방에 좋다. 특히 달래는 씹다래하면서 단맛도 나서 봄철에 식욕을 돋우는 효능이 있다고 한다. 몸속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져 고지혈증 예방에 좋고, 혈관을 튼튼하게 하는데도 좋다고 한다.



쑥 | 각종 무기질 및 비타민 A, C가 풍부하여 잃었던 식욕을 살려주고 위장을 튼튼하게 해준다고 한다. 또 간기능을 좋게 하는 효능이 있어 피로 회복 및 숙취해소에 도움을 준다. 또한 나쁜 콜레스테롤 및 노폐물을 제거하여 당근, 마늘과 함께 성인병 예방 3대 식물로 불린다.

법왕사 소식

백고좌법회 삼사순례법회 봉행



법왕사에서서는 지난 4월 14일 경남 하동 쌍계사와 전남 구례 화엄사, 사성암으로 백고좌법회 이동순례법회를 봉행하였습니다. 이날 법회에는 궂은 비가 내리는 가운데서도 1백여 불자가 동참해 세 도량을 참배하였습니다. 이들 세 사찰은 섬진강을 끼고 있는 명찰로 십리 벚꽃으로 이름난 명승지로 봄철 매우 뜻깊은 이동법회가 되었습니다.

4월 18일 삼월 삼짇날 합동 천도재 봉행

법왕사에서서는 지난 4월 18일 삼월 삼짇날을 맞이하여 합동 천도재를 봉행하였습니다. 음력 3월 3일 삼짇날은 '강남 갔던 제비가 돌아온다는 날'로 바야흐로 봄 기운이 무르익어 겨울잠을 자던 뱀도 깨어나고, 나비와 새들도 날아다니기 시작하면서 이날 장을 담그게 되면 맛이 좋다고 하여 겨우내 허물어진 집안 곳곳을 수리하는 날이기도 했습니다.

만불전 원불봉안 점안법회 봉행

법왕사에서서는 지난 4월 7일 만불전에서 원불봉안 점안법회를 봉행하였습니다. 이날 점안법회에는 그동안 새로이 봉안한 50불을 점안하는 것으로 앞으로 1만불을 다 채울 때까지 계속됩니다. 원불 1불에 30만원이며 분할 납부도 가능하니 많은 동참 바랍니다.

우담바라합창단 불교연합합창제 참가



법왕사 우담바라합창단(지휘 정무시)이 오는 5월 17일(목) 오후 6시 코오롱 야외음악당에서 열리는 '달구벌 관등놀이 대구·경북불교연합합창제'에 참가합니다. 또한 16일(수) 오후 6시에는 같은 장소에서 법요식에 참여하고, 19일(토) 오후 6시에는 두류야구장에서 열리는 제등행렬에도 동참합니다.

연담스님 아함경 불교대학 개강(2년과정 고급반)



법왕사에서서는 오는 5월 12일 연담스님의 아함경 강좌를 시작으로 불교대학을 개강하는데 매월 둘째주 토요일 2시~5시까지 3시간 강의를 합니다. 아함경은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설법하신

당시의 말씀을 기록한 것으로 대소승의 구별도 없어 후세에 발달하는 불교의 원천이 되는 내용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를 근본불교 또는 원시불교라고 하여 불교 교리연구의 기초로 삼아왔습니다.

제35회 백고좌법회 영가천도 49재 입재

법왕사에서서는 지난 4월 24일 제35회 백고좌법회 영가천도 49재를 입재하였습니다. 이번 49재는 백고좌법

회 기간 동안 매일 기도를 올리며 49일 만인 6월 11일 회향합니다. 영가천도에 참여하는 불자들은 기도기간 중 선망부모와 조상 및 수자령가를 천도, 왕생극락을 기원합니다. 초재일은 4월 30일이며 매 재일은 월요일이며 영가 위당 동참금은 1만원입니다. 불자 여러분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신중단 신중탱화 점안법회 봉행



법왕사에서는 오는 5월 17일 대적광전 신중단의 신중탱화 점안법회를 봉행합니다. 신중은 장법을 수호하는 기능뿐 아니라 대승불교시대에는 호국의 기능까지 갖게 되는 존재로 원래 인도의 재래신들이 불타의 자비심에 감동되어 불교에 귀의한 후 불법의 유통과 옹호를 맹세한 신중을 말합니다. 이러한 신중신앙은 신중탱화로 발전하여 대웅전, 극락전을 비롯한 모든 불전에 봉안되는 필수적인 불화로써 불전의 내부를 향하여 오른쪽 또는 왼쪽에 모시는데 이 탱화 불사에 동참하시면 무량한 공덕을 쌓게 되오니 많은 동참 바랍니다.

KT 진여회 4월 정기법회 봉행

KT 불자회 모임인 진여회 회원 30여명은 지난 4월 15일 법왕사 대적광전에서 4월 정기법회를 봉행하였습니다.

소나무 두 그루 정원수로 식재



법왕사에서는 종합복지관 앞마당에 아름다운 수형의 반송 두 그루를 식재하여 도량을 더욱 여법하게 정비하였습니다. 수령 50년 이상된 이 반송은 지상에서 열 개가 넘는 가지가 사방으로 뻗어있어 더욱 운치있는 경관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불기 2562년 부처님 오신날 봉축법요식 봉행



법왕사에서는 오는 5월 22일 불기 2562년 부처님 오신날 봉축법요식을 법왕사 대적광전에서 봉행합니다. 이날 법요식은 오전 10시 타종을 시작으로 육법공양, 봉축사, 법문, 발원문 낭독 등 순서로 진행됩니다. 불자들은 아기 부처님을 목욕시키는 관불의식을 행하며 부처님오신날의 참뜻을 새기게 됩니다. 중생을 구하러 이 사바세계에 오신 부처님을 다시 한 번 생각하고 그 큰 뜻을 이어받는 행사에 불자라면 누구나 동참하여 여법한 하루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법왕사 소식

5월 19일 제49회 경로잔치 개최



법왕사에서 오는 5월 19일 토요일 복지관 전시실에서 지역 어르신 1천 여분을 초청하여 푸짐한 식사를 대접하고 흥겨운 잔치 한 마당을 베푸는 경로잔치를 엽니다. 법왕사 개원 이래 매년 두 차례씩 개최해 온 경로잔치는 수성구와 남구 등 법왕사 주변지역 어르신들의 신나는 잔치로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행사가 되었습니다. 불자 여러분들께서는 주변에 널리 알려져 많은 어르신들이 동참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선옥 원장 4월 30일부로 퇴임

해오름요양원을 3년여 동안 이끌어 온 강선옥 원장이 개인사정으로 4월 30일부로 퇴임하였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신 강 원장님께 부처님의 가피가 늘 함께하기를 해오름 요양원 가족들은 기원합니다.

박창모 신임 원장 5월 1일 부임



해오름요양원 신임 원장으로 박창모님께서 5월 1일자로 부임하였습니다. 신임 박 원장님은 오랜 복지활동 경험을 갖춘 유능한 분입니다. 해오름 가족은 박 원장님을 환영합니다.

오백나한 1차 점안법회 봉행



법왕사에서는 지난 4월 21일 오백나한 봉안 1차 점안법회를 열고 지금까지 접수받은 150불에 대한 점안의식을 봉행하였습니다. 나한은 일체번뇌를 끊고 깨달음을 얻어 중생의 공양에 응할 만한 자격을 지닌 불교의 성자로 소승불교에서는 수행자가 올 수 있는 가장 높은 단계에 있는 자라는 뜻이며 대승불교에서는 최고의 깨달음을 얻은 성자로서 석가에게서 불법을 지키고 대중을 구제하라는 임무를 받은 자를 말합니다. 불제자 가운데 부처의 경지에 오른 16명의 뛰어난 제자를 '16나한'이라고 하며 부처가 열반한 뒤 제자 가섭이 부처의 설법을 정리하기 위해 소집한 회의 때 모였던 제자 500명을 '500나한'이라고 하여 예부터 예배의 대상으로 삼아 왔습니다. 법왕사에서는 5백나한을 다 채울 때까지 불사를 계속할 예정이오니 불자 여러분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김필남 복지사 새로 부임



김필남 선생님이 해오름요양원 복지사로 오셨습니다. 김복지사는 간호사로 오랫동안 활동하셨으며 노인 복지에 관심을 갖고 이번에 새로 오시게 되었습니다.

새로 오신 법우님

박성용 피경호 장근전 장위식 문군식 박상하
이덕례 최재훈

사보 도움 주신 분

김상언 20부 관일스님 200부 법안스님 400부
진여희 10부

도움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도움으로 법왕사보는 거듭 새롭게 꾸며질 것입니다.

공양 올리신 분

◎ 공양미 올리신 분

차재민 배태훈 김주현 김태영 오복희
김영현 김무연 심보현 정영웅 심준형
김근태 백철기 권준호

◎ 과일공양 올리신 분

김근태 정현석 김기춘 민병철 권태형
김의환 최홍규 성점화 금태운 이준목
정원재 문은식 문백주예 문이영왕

◎ 대중공양 올리신 분

권춘자

◎ 떡공양 올리신 분

고선순 이종량 이웅용 조아윤 이세정
전재술 전진양 권태일 이종량 이복희
이승민 안준영 제갈경화 문박옥기

◎ 꽃공양 올리신 분

고선순

◎ 물품 보시하신 분

박근수(수건) 양지영(휴지) 신근배(식용유)

◎ 삼사순례 공양 올리신 분

강유미(차량보시) 신명균(도시락) 고선순(떡)
우연희(음료수) 자비화(과일) 송림모텔(음료)

◎ 법공양 올리신 분

활안큰스님(불교시문학) 문황재영 지장권(30권)
법안스님(만화로 보는 붓다, 3집, 1집 8권)

◎ 저금통 회향하신 분

신지원

불사 올리신 분

◎ CMS 불사하신 분(~4/25)

강유주 1만원	성점순 1만원	전성복 1만원
강준희 2만원	손동림 5천원	전재필 5천원
김관용 5천원	손향숙 2만원	전태일 5만원
김명선 2.5만원	송순분 2만원	정순희 2만원
김명숙 1.5만원	송윤선 7만원	정연희 8천원
김성미 5천원	신인숙 5천원	정재순 3만원
김성자 1만원	신정옥 4.5만원	조희선 2만원
김수라 3만원	심규암 1.8만원	최진석 5천원
김연자 1만원	심영선 1.5만원	한천숙 1만원
김옥자 1만원	오재대 1만원	홍경숙 1만원
김제순 1만원	오창혁 1만원	황국희 2.5만원
나형진 2만원	이숙희 2만원	황금식 7천원
류윤희 1.5만원	이호진 1만원	황덕선 5천원
박정숙 3만원	장명희 5천원	
서필희 1만원	장미아 4천원	

◎ 일년등 올리신 분(초파일 가족등)

283 김갑수 284 홍성수 285 박말순 286 이종대
287 신원섭 288 권오암 289 홍기수 290 권태묘
291 김여래심 292 김명목 293 장영준 294 유종건
295 이상률 296 이선봉 297 김철수 298 신창진
299 조용목 300 김춘자 301 박성용 302 박동숙
303 채상백 304 채희재 305 박희성 306 이서형
307 이범일 308 도원우 309 고재욱 310 이덕희
311 정무시 312 유유남 313 안병복 314 조준형
315 김태익 316 허대성화 317 김주석 318 박정아
319 백창희 320 임분자 321 이강복 322 정두진
323 허영철 324 김상한 325 신용홍 326 안선월
327 김종구 328 박영기 329 정창진 330 최홍규
331 김갑진 332 전상태 333 남현우

◎ 영가등 올리신 분(복위자)

41 박동근 42 황미선 43 황미선
44 강준희·김선우 45 정현석 46 이영광
47 정연이 48 김경옥 49 이승준 50 채영택
51 채영택 52 지세한 53 채상백
54 권현구·하경순 55 이강원·이강문
56 김영웅 57 김정윤 58 김정윤 59 백철기
60 진성렬 61 김옥출 62 안해국 63 김동훈

64 이인순 65 김우경 66 권기정 67 박상익
68 신중식 69 김정자 70 이재학 71 양문갑
72 황춘연 73 권기정 74 김용균 75 서영기
76 안준영·이주애 77 이현국 78 장삼술
79 전숙환 80 전효환 81 윤재영 82 이정숙

◎ 꽃등 올린 분

36 이상열 37 최재훈 38 김영홍 39 변우성
40 박성근 41 유성종 42 김경희 43 박남희
44 사공관 45 권중훈 46 박장식 47 김순덕
48 김이규 49 실상스님 50 조은우 51 홍애분
52 강선옥 53 신명균 54 신현수 55 이재현
56 전진양 57 최석돌 58 권기욱 59 이동학
60 오귀종 61 김명옥 62 전선철 63 이창식
64 이정숙 65 문국연 66 김상우 67 류윤만
68 전순수 69 황영희 70 이세정 71 박두리
72 박희수 73 김하균 74 조기석 75 이정철
76 박종거 77 김명국 78 정영선 79 정도환
80 김상조 81 이병은 82 이대각 83 권준자
84 박선자 85 전충훈 87 고선순 88 손대천
89 장위식 90 남정오 91 유유남 92 이순란
93 서정훈 94 정영웅

◎ 본당 꽃등 올린 분

1 이동학 2 김종호

◎ 본당인등 올린 분

340 배현수 398 양종선 399 김정숙 400 양준호
401 양현호

◎ 단청등 올린 분

30 지장회 31 관음회 32 신장회 33 자비회
34 산신회 35 일심회 36 우담바라합창단
37 서각반 38 불화반 39 해오름요양원직원 일동
40 보광직물 41 청구도시락 42 대통령 문재인
43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 44 국회의원 주호영
45 대구시장 권영진 46 신성가스 박한테
47 흥부하우스 강유미 48 금광테크 김태영
49 신암수산 박시병 50 경북신경외과 박상익
52 김순조 53 전기감리 이용욱
54 와우노래방 박종울 55 세기보청기 이희영

◎ 대등 올린 분

1 원공업사 강기찬 2 해월스님

◎ 대적광전 인등 올린 분

5 신찬엽 361 이동하

◎ 초파일등 올린 분

2 양효숙 3 신웅균 4 신현옥 5 신현섭 6 이원석
7 김진구 8 조현준 9 신종수 10 심재용 11 박근수
12 장삼술 13 이현국 14 전효환 15 김옥출

◎ 문수보살 불사하신 분

박세은 류희승 류주연 경조 비구니 스님

◎ 오백나한상 불사하신 분

134 김정석 135 정용진 177 김주석 178 장미야

◎ 신중탱화 불사하신 분

최남규 최남윤 최남익 박경민 박성필
안준영 이주애 안효창 장근전 이준규
양봉률 김상수 이지송 김정호 김수연
양봉훈 임유나 신유정 최영희 고성진
김은송 오창혁 오현규 권창훈 김유창
강춘희 김선우 김선민 김경희 김민철
김태우 김성우 남창형 남학형 신지원
박대희 정효교 정정교 이정호 이상태
이동학 이호형 최재훈 최윤재 강유미
김상한 김영홍 박무착심 혜조스님
경조 비구니 스님

◎ 복전함 불사하신 분

이동학 김상수 조기석 김종황 김영식
이정민 최재훈

◎ 닫집연 올린 분

채영택

◎ 법상 불사하신 분

전재술

◎ 음반공양 올린 분

유수광

◎ 법사비 보시하신 분

산신회

◎ 승복 보시하신 분
신나현

◎ 요양원 후원하신 분
최재훈

왕생극락하옵소서

- ◆ 亡조진근 영가님의 초제가 4월 2일에 있었습니다.
- ◆ 亡이을렬 영가님의 막제가 4월 8일에 있었습니다.
- ◆ 亡이기범 영가님의 기제사가 4월 13일에 있었습니다.
- ◆ 亡이정순 영가님의 기제사가 4월 15일에 있었습니다.
- ◆ 亡민해순 영가님의 기제사가 4월 15일에 있었습니다.
- ◆ 亡제점악 영가님의 막제가 4월 16일에 있었습니다.
- ◆ 亡김진태 영가님의 기제사가 4월 19일에 있었습니다.

- ◆ 亡정준식 영가님의 기제사가 4월 23일에 있었습니다.
 - ◆ 최재훈 복위 상세선망조상 영가의 천도제가 4월 23일에 있었습니다.
 - ◆ 亡황재영 영가님의 막제가 4월 25일에 있었습니다.
 - ◆ 亡김정태 영가님의 막제가 4월 28일에 있었습니다.
 - ◆ 亡진은지 영가님의 막제가 4월 28일에 있었습니다.
- 왕생극락을 기원합니다.

개업을 축하합니다

☞ 4월 26일 자비회원 김정남 법우님께서 수성구 두산동 대우트럼프월드 상가에 **대영공인중개사** 사무실을 개업하셨습니다.



대적광전 신중탱화 모연중

법왕사에서는 복지관 4층 대적광전 삼신불 봉안에 이어 마지막 불사로 신중단 후불탱화를 모연합니다. 법당을 최적의 기도공간으로 장엄하기 위한 마지막 불사인 신중탱화 불사에 불자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 동참금 : 1인 10만원
- 탱화 하단에 시주자 이름을 새겨 드립니다.



▲ 3층 만불전 신중탱화



▲ 새롭게 모실 4층 대적광전 신중단

해오름 요양원 소식



나무 그늘 아래서

여름을 앞둔 봄의 어느날 어르신께서 새로 심은 나무 그늘 아래에서 요양보호사와 함께 따가운 햇살을 피해 같은 곳을 바라보고 계시네요. 언제나 크고 푸른 소나무처럼 요양보호사들은 어르신들에게 필요한 그늘이 되어주시고, 어르신들도 사시사철 항상 건강하시고 바라는 소원이 이루어지길 기원합니다.



신구 임직원 환영회 및 환송회 개최

해오름요양원은 4월 30일 가창 커피숍에서 새로 부임한 박창모 원장님과 김필남 복지사님, 이윤정 간호조무사님을 환영하고 이임하는 강선옥 전 원장님을 환송하는 신구 임직원 환영회 및 환송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요양원 가족 15명이 참석한 이날 실상 주지스님을 비롯한 임직원들은 그 동안 수고하신 강원장님을 환송하고 새로 부임하는 임직원들과의 화합을 다짐했습니다.



직업건강상담 실시

4월 12일 본 요양원에서는 경산근로자 건강센터와 협력하여 직원들을 대상으로 건강상담을 실시하였습니다. 직원 개개인 건강해야 어르신들에게 보다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직원의 건강이 바로 요양원의 건강임을 인식하여 앞으로도 더 나은 어르신 케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인학대 예방교육

본 요양원에서는 대구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의 박은하 강사를 초빙하여 직원들을 대상으로 '노인학대예방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노인학대의 정의와 노인인권의 의미와 실천방안 등을 배우고 구체적인 신고 절차와 방법 등을 숙지하여 어르신들의 인권과 안전을 보호하는데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 개인 정기봉사자 | 안순정, 이경희, 손미령, 이수정, 배영숙(웃음치료), 무하스님(웃음치료), 이정신, 신계영(마술공연), 윤수빈, 강진주, 윤성덕, 문자영(이미용)

| 단체 정기봉사자 | 수성시니어공연단(공연활동), HE봉사단(놀이치료), 써포터즈봉사단(야외나들이), 친한친구봉사단(놀이치료), 행복한교육이야기(놀이치료), 어린왕자봉사단(놀이치료), 그루터기봉사단(놀이치료), 오카리나공연단(공연활동), 하모니카공연단(공연활동), 우쿨렐레공연단(공연활동), 색소폰공연단(공연활동), 더블유봉사단(놀이치료)

후원금 수입 및 지출내역(3월)

◎ 수입내역

CMS(자동이체) 후원하신 분

강병철 1만원	김봉숙 5천원	류훈자(지일) 5천원
강선옥 5만원	김수곤 5천원	문성섭 1만원
강소남 5천원	김수라 1만원	박경란 1만원
강영도 2만원	김수자 1만원	박경자 5천원
고연숙 1만원	김숙희 1만원	박귀분 1만원
고재옥 2만원	김순덕 1만원	박남희 3만원
구정대 2만원	김순연 5천원	박대희 5천원
권순득 1만원	김순태(황공주) 1만원	박동규 5천원
권순미 1만원	김양순 1만원	박상용 5천원
권순영 1만원	김영애 1만원	박성숙 5천원
권순칠 1만원	김영호 1만원	박성용 5천원
권영철 5천원	김영희 5천원	박성은 5천원
권오관 2만원	김옥경 1만원	박수진 1만원
권오국 1만원	김옥희 5천원	박순남 5천원
권지현 2만원	김외환 1만원	박순영 5천원
권춘자 3만원	김용태 1만원	박원태 1.5만원
금명섭 5천원	김우영 1만원	박인철 1만원
김건희 1만원	김원형 3만원	박종규 1만원
김경자 1만원	김의목 1만원	박종규 1만원
김경호 1만원	김정규 5천원	박종환 1만원
김경희 2만원	김정숙 5천원	박치민 5천원
김기덕 2만원	김정숙 5천원	박희조 5천원
김기수 2만원	김정순 3만원	반룡사 1만원
김대현 5천원	김정임 1만원	배수현 2만원
김만기 5천원	김정자 5천원	배하수 1만원
김명숙 1만원	김주현 2만원	사공관 2만원
김명옥 1만원	김진성 1만원	서동남 1만원
김미자 1만원	남기웅 4만원	서준석(성지) 1만원
김미정 1만원	노수정 1만원	서찬수 1만원
김미희 1만원	도순자 1만원	성기옥 1만원
김민주 1만원	류윤만 1만원	손수연 1만원

송민경 1만원	이복희 1만원	정명선 2만원
송재옥 1만원	이상혁 1만원	정민경 1만원
송정숙 5천원	이석규 5만원	정숙자 1만원
시명숙 1만원	이성환 5천원	정숙희 1만원
신구자 5천원	이승연(정미희) 1만원	정시영 1만원
신귀화 1만원	이승환 5천원	정연이 5천원
신돈식 1만원	이옥자 1만원	정옥수 5천원
신임선 5천원	이용옥 1만원	정인순 5천원
신충호 5천원	이유태 1만원	정태교 5천원
신홍준 1만원	이은유 1만원	정혜숙 1만원
신화식 1만원	이인순 5천원	조규인 1만원
심규암 5천원	이임숙 2만원	조성자 5천원
안경순 1만원	이재봉 5천원	조영석 1만원
안명희 1만원	이전희 5천원	조영주 1만원
안희선 1만원	이정숙 1만원	조정재(정민석) 1만원
양나영 5천원	이정연 5천원	진봉희 1만원
양봉률 1만원	이정옥 1만원	채옥연 5천원
양지영 1만원	이정자 1만원	최금부 1만원
양혜진 1만원	이정화 1만원	최분규 1만원
양희숙 1만원	이정희 3만원	최영희 1만원
여택동 5천원	이정희 5천원	최윤희 5천원
오난옥 5천원	이준우 5천원	최창숙 5천원
용마관음사 3만원	이창수 1만원	한규매 1만원
우정미 1만원	이현옥 1만원	한희록 1만원
우정미 2만원	이호동 5천원	허유미 5천원
유경희(차목원) 2만원	임상덕 1만원	호산(정(박)숙) 1만원
유명옥 1만원	장성규 5천원	홍기학 1만원
윤종수 1만원	장시원 1만원	홍애분 1만원
이경자 1만원	장우성 1만원	황미선 2만원
이남희 1만원	장재혁 5천원	황영희 1만원
이명숙 1만원	장찬규 5천원	황학영 1만원
이병노 1만원	정경석 2만원	
이병희 1만원	정경숙 1만원	

총합계 : 2,030,000원

무동장으로 후원하신 분

강미경 10,000원 이강복 30,000원
이영주 30,000원

◎ 지출내역

간식비 : 145,620원
CMS수수료 : 44,000원
금웅결제원요금 : 44,000원
SMS수수료 : 500원
케익 구입비 : 60,000원

총지출 : 294,120원

※ 해오름요양원을 위해서 후원해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매월 사보를 통해서 수입, 지출내역을 상세히 기록할 것이며 남은 금액도 어르신들을 위해 소중히 사용하겠습니다.

※ 해오름요양원에서는 후원자님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CMS자동이체신청을 개설했습니다. 법왕사 및 해오름요양원에 오시면 신청서가 구비되어있으니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나누는 행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 후원물품 보내주신 분

노진덕 어르신 보호자 : 야쿠르트 100개
이일수 어르신 보호자 : 오렌지 2봉
김숙자 어르신 보호자 : 커피 2통
김갑영 어르신 보호자 : 카스타드 5박스, 야쿠르트 50개, 통닭 4마리
선진스님 : 불가리스 40개, 야쿠르트 45개, 두유 2박스, 과일주스(1.2L) 6개, 바나나 3송이, 딸기 3박스
이경자 위생원 : 바디로션 3개, 삼푸 2개, 두유 3박스, 비타500 2박스, 꿀호떡 2봉, 휴지(30롤) 5개, 빵과자(3kg) 1봉

해오름 요양원 새가족

해오름요양원 신규 입소어르신
박정숙 어르신

자원봉사자 모집

◎ 활동일시

- 매주 1~2회 14시~15시(시간, 요일 조절 가능)

◎ 활동분야

- 미술활동, 음악활동, 종이조형, 아로마요법, 생활체육, 요가, 민요, 원예, 다도, 놀이활동 등

◎ 신청방법

- T. 053-766-5767 담당 사회복지사 이상혁
- 방문접수 법왕사 1층 요양원 사무실
(수성구 파동로 51길 96)

요양원 입소 안내

◎ 입소대상

-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의 노인성질환으로 장기 요양 등급 1~5등급(시설급여) 판정을 받은 어르신

◎ 입소시 준비서류

- 장기요양인정서 1부
-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1부
- 건강진단서 1부

◎ 이용료

- 기초생활수급자 전액무료
- 의료급여수급권자(저소득층) / 국가유공자 본인부담금 10%
- 비급여항목(식대, 간식비) 별도 부담

◎ 문의 전화. 053)766-5767 팩스, 053)766-5095

후원안내

금품후원 새마을금고 9002-1643-4050-9
예금주 해오름요양원

물품후원 기저귀, 의약품, 세제류, 의복, 주·부식류, 생활용품 등

CMS자동이체 후원

법왕사 및 해오름요양원에 방문하셔서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1구좌 5,000원부터)

해오름 사람들

● 직원 동정

신규 입사를 축하합니다.

박창모 원장, 김필남 복지사

퇴사 그동안 수고많으셨습니다.

강선옥 원장

어르신 케어에 애써주신 분들의 앞날에 부처

님의 가피가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후원업체 소개



하회물류(주)(www.hahoeofood.com)에서는 매달 어르신들의 부식에 필요한 신선한 두부를 후원해 주시고 계십니다. 후원업체의 사랑과 나눔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법당 일년등 및 초파일 연등

연등은 부처님의 무량공덕을 찬탄하고 중생의 무명업장을 소멸하는 크나큰 공덕을 드러냅니다. 법왕사에서는 무술년 1년을 밝힐 법당 일년등, 가족등, 사업등, 영가등과 초파일 연등을 접수받고 있습니다.

불자 여러분들께서는 모두 수희동참하시어 모든 소망을 성취하시고 주위에도 널리 권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영 가 등 5만원
- 아미타전, 석탑등 3만원
- 사 업 등 30만원~50만원
- 단 청 등 100만원
(개인 사업체)
- 법 당 일 년 등 10만원
(만불전, 가족 이름 모두 들어감)

- 동참금은 분할납부 가능합니다.
- 사업등에는 사업체 이름을 넣어 드립니다.

소망성취
계좌번호

대구은행 047-05-003698-6 법왕사
농 협 702010-51-106490 법왕사





법왕불교대학

초·중급 및 야간반, 아함반 모집

법왕불교대학에서는 부처님의 가르침과 진리를 배워 신심과 원력을 돈독하게 하기 위한 불교대학 초·중·고급 및 야간반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초급반은 주지스님 직강으로 사찰예절을 비롯해 기초교리(예불문, 천수경, 반야심경)를 강의하며, 야간반은 주지스님과 외부 법사를 초빙하여 주요 경전을 강의합니다. 한편 아함경을 30년 동안 연구하신 제주도 연담스님을 초청, 2년에 걸쳐 아함경 전반에 대해서도 강의를 할 예정입니다. 불교에 관심있는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초급반 2018년 3월 13일 개강 : **주간반**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중급반 2018년 3월 20일 개강 : **야간반** 매주 화요일 저녁 7시

수강료는 분기별 3만원(월 1만원)입니다.

개설반	법사	주제	시간
초급반	주지스님	기초교리(예불문, 천수경, 반야심경)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야간반	주지스님	지장경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특강반	외부법사	주요 경전(금강경, 아미타경)	추후 공고
특강반	영일스님	원형불교	모집중
아함반	연담스님	아함경(2년간 연속 강의)	매월 둘째주 토요일 오후 2시
야간반	관일스님	법구경 특강	저녁 7시 ~ 8시 30분



대한불교
조 계 종 법 왕 사

대구광역시 수성구 파동로 51길 104
T. (053)766-3747 F. (053)767-6095
www.bubwangsa.or.kr

나라의 안녕과 번영, 남북통일을 기원하는 제35회 경율론(經律論) 삼장(三藏) 백고좌대설법회(百高座大說法會)

법왕사에서는 2018년 무술년 들어 첫번째 백고좌법회인 제35회 백고좌법회를 3월 5일부터 6월 12일까지 봉행합니다. 백고좌법회란 100일 동안 100분의 고승대덕 스님을 모시고 사자좌를 차려 하루도 거르지 않고 연속으로 설법회를 여는 것으로 신라 진흥왕 때에 처음 열린 이래 통일신라와 고려시대에 성행하다가 조선시대에 그 맥이 끊어진 것을 1995년 법왕사에서 복원하여 오늘이 이르고 있습니다.

법왕사 백고좌법회는 1995년 처음 시작한 이래 한 해도 빠짐없이 매년 1~3회씩 개최하고 있어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의 불자들에게 익숙한 법회입니다. 이번 제35회 백고좌법회에서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덕 높은 스님들을 두루 초청하여 수행 생활에 꼭 필요한 팔만사천, 금구성언의 법문을 듣고 친견하는 귀중한 기회를 가질 예정이오니 불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동참을 바랍니다.

증명 : 중심문도회 회주 학승 심경스님

대한불교 조계종 법왕사 주지 如是 實相 합장



• 60일차

5월 3일
특별법문
지안스님
양산 통도사
반야암 주지



• 63일차

5월 6일
특별법문
효범스님
부산 부처님마을 주지



• 68일차

5월 11일
특별법문
재원스님
통도사 한주



• 100일차

6월 12일
보살계 수계법회
해능스님
울산 합림학당 주지

◆ 일시 : 2018년 3월 5일 ~ 6월 12일(100일간)

◆ 장소 : 법왕사 복지관 4층 대적광전

◆ 법회 : 매일 오전 9시 기도, 법문 11시

회차	날 짜	법사스님	약 력	회차	날 짜	법사스님	약 력
58일차	5월 1일 ㉸	대현 바구니스님	칠곡 정암사 주지	65일차	5월 8일 ㉸	변윤스님	선방정진
59일차	5월 2일 ㉸	무애스님	해인사 승가대학학장	66일차	5월 9일 ㉸	정운 바구니스님	서울 동국대 교수
60일차	5월 3일 ㉸	지안스님	양산 통도사 반야암 주지	67일차	5월 10일 ㉸	해피스님	한국테라와다불교선원장
61일차	5월 4일 ㉸	정법스님	부산 진흥사 주지	68일차	5월 11일 ㉸	재원스님	통도사 한주
62일차	5월 5일 ㉸	광명스님	서울 비로선원장	69일차	5월 12일 ㉸	여초스님	수원 자정원 주지
63일차	5월 6일 ㉸	효범스님	부산 부처님마을 주지	70일차	5월 13일 ㉸	승오스님	전 해인승가대 강사
64일차	5월 7일 ㉸	해해스님	경산 반룡사 주지	71일차	5월 14일 ㉸	지수스님	금룡사 주지



대한불교
조 계 종

법왕사

대구광역시 수성구 파동로 51길 104
T. (053)766-3747 F. (053)767-6095
www.bubwangsa.or.kr